미,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요구

공동위 개최 후 개정 협상 돌입할 듯

공청회·국회 보고 등 거쳐 개시 선언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후 협정 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재협상' 대신 '개정 및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면서 개정협상 가능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공동위 개최 이후 한미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22.2조에 따르면 공동위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감독, 규정해석, 개정 검토, 협정상 약속수정 등에 대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결정한다. 공동위가 협정 개정 검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공동위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한다. '한미 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美 자동차·철강 논의 요구땐 한국 ISD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쟁점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한미 FTA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은 결국 재협상 개시의 사전 절차인 공동위 개최를 요구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다. 양국은 공동위를 통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공동위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것은 특별회기에 해당한다. 특별회기는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공동위에서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공동위에서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무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인식은 다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도 큰 문제로 제기했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양국 경제 기초와 수요의 차이, 거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한국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인구 30% 늘때 車 7배 증가

광주의 1990년~2016년 '교통여건 및 전망' 보고서

55만대 늘어난 63만3천대

도심 주행속도 0.99㎞/h 줄고

교통비용 1조5813억 달해

지난 27년간 광주시의 차량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에 비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국내 6대 도시 중 광주는 그나마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광주시가 발표한 '교통여건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14만5000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148만9000명으로 약 30% 늘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같은 기간 8만2000대에서 63만3000대로 7.7배 늘었다. 2020년에는 72만3000대로 1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51만8000대에서 61만7000대로 10만대 가량 늘어 19.1% 증가할 전망이다.

■ 차량 평균 주행속도 (단위:㎞/h)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도심	34.36	34.17	34.60	34.26	32.97	34.25	33.37
외곽	53.93	52.81	53.37	51.86	52.63	51.05	50.94

■ 교통수송 분담율 (단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버 스	38.0	36.7	36.3	36.6	35.6	35.0	34.7
택 시	15.6	15.1	15.2	14.7	14.2	13.8	13.3
승 용 차	31.7	33.6	36.4	37.9	39.6	40.3	40.7
지 하 철	2.5	2.6	2.7	2.7	2.8	3.3	3.5
기 타	12.2	12.0	9.4	8.1	7.8	7.6	7.8

차량 주행속도도 2010년과 비교해 도심과 외곽이 각 34.36㎞/h와 53.93㎞/h에서 33.37㎞/h와 50.94㎞/h로 느려졌다.

차종별 도로 점유율은 승용·승합차가 68%로 10대 중 7대 가량을 차지했으며 화물차 19.9%, 택시 5.9%, 버스 4.9% 순이었다.

교통혼잡비용과 사고비용을 더한 교통비용은 1조5813억원에 달했다. 교통혼잡비용은 9655억원으로 울산(6178억원)에 이어 전국 6대 도시에서 두 번째로 적고, 교통사고비용은 6158억원으로 대전(5958억원), 울산(5275억원)에 이어 전국 6대 도시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현재 교통수송 분담률은 승용차가 40.7%, 버스 34.7%, 택시 13.3%, 지하철 3.5%, 기타 7.8% 등으로 수송량과 비교해 승용차 비율이 높아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연장은 개설도로 1651㎞, 미개설 도로 685㎞ 등 모두 2345㎞로 도로율은 2001년 기준 19.0%에서 지난해 24.3%로 5.3% 포인트 증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

문화전당 '행성 그 사이의 우리'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3일 작가 토마스 사라세노(아르헨티나)의 '행성 그 사이의 우리'전을 언론에 사전 공개했다. 전시는 문화창조원 복합1관에서 15일부터 2018년 3월25일까지 진행된다. 작가는 우주 모양 구조물과 거미줄로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형상화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靑, 지방분권 추진 TF 출범…특별법 개정키로

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이며,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2409.49

코스피 최고가

코스피가 또다시 새 역사를 열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400선을 넘었고, 장중엔 2420까지 넘나들었다. 코스피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단계로 '레벨업'했다.

1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72포인트(0.74%) 오른 2409.49에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13.99포인트 오른 2400선에서 출발해 오후 1시께에는 2420선까지 넘어서며 최고점을 높였다. 앞선 장중 최고치는 지난달 29일 세운 2402.80였으며 종가 기준 최고점은 2396.00이었다.

이날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 연준이 자산 축소를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밤 옐런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반기 의회증언에 나섰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두마차가 강세를 보인 덕분에 코스피 200정보기술 레버리지지수가 4% 급등했다. 그외 의료정밀, 증권,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이 크게 오른 반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6% 가까이 급락했다. 의약품,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1.59포인트(0.24%) 오른 652.69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성기자 bigkim@

'원전 공사 중단' 무산

한수원 노조 반발로

13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가 노조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승합차 1대를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조성희씨 등 비상임이사 6명은 노조에 막혀 본관 광명이 세관 출입을 하지 못했다. 노조는 이사들에게 자신들 의견을 밝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이사들은 10분 가까이 노조에 막혀 있다가 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어 1시간 30여분 뒤인 오후 4시 42분께 조 비상임이사 일행은 본관 진입을 다시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출입을 재차 막자 조 비상임이사는 "오늘 이사회 개최는 어려울 듯하다"고 밝히고 일행과 발길을 돌렸다. 그 뒤 한수원 측은 이사회 개최 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융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융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I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앙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의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 · 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현 전도사 사역자 특별우대!
여목사제도!

gjbc.kr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2. 모집인원 : 월요반, 저녁반(월, 화), 토요반 각 30명 내외
3.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접 수 처 : 본교 행정실
5.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본교 교수진

성 명	시무교회	성 명	시무교회
바이블칼리지 신학연구과 교수			
이환수 학장	성도교회	변 찬 목사	풍암전원교회
최시태 처장	영산제일교회	임무광 목사	미국 텍사스 포트워트 한인장로교회
이신한 목사	월리엄신교사	김정민 목사	한남대교목대전구소
황영준 목사	광주동부교회	고경태 목사	주님의교회
박상천 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진장환 목사	순천매곡장교회
박용민 목사	광주예일교회	김범택 목사	광주은평교회
이상덕 목사	광주새한교회	박성수 목사	광주장조교회
이원재 목사	광주무등교회	신동구 목사	주님의교회
김문일 교수	전남대학교	양점순 목사	주사랑교회
바이블칼리지 성경대학원 교수			
고경태 목사	주님의 교회	최시태 목사	영산제일교회
임무광 목사	미국 텍사스 포트워트 한인장로교회		

광주바이블칼리지 소개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명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인준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제도 (여목사제도)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속사적인 풍성한 가르침
- 목회사역과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수업

석박사 학위과정

- 미국 캘리포니아 디퍼런스 대학교와 학사교류 협약 (MOU)
- 석사과정 : 목회학 석사(M.Div) = 5학기 (30학점)
- 박사과정 : 목회학 박사(D.min) = 6학기 (36학점)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학교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성도리 산 72)
☎ 061-381-0000